

#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제923호

## 끊임없는 교대 학생식당 불만... 생협이 식당 운영 맡아야

교대생 절반이 학생식당 '맛 없고 값 비싸' 이용 안해  
생협 운영 여부 이달 중순 판가름... 적극적 지원 호소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불만으로 사라캠퍼스 교학처(교학처장 이주섭 초등국어교육전공 교수)가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고윤희 학생처장 수학 교육과 교수, 이하 생협)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생협이 직접 운영하는 아라캠퍼스 백두관식당과 달리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은 입찰을 통한 외주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형식 때문에 학생들이 식당에 불만을 가져도 학내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음식의 질 저하와 비싼 가격, 영리적 매점 운영 등 학생들의 원성을 사ден 학생식당은 내년 1월 16일 계약이 만료된다.

## 제4회 JNU오픈캠퍼스 열려

10월 24일·11월 21일 두차례 예정

제4회 JNU오픈캠퍼스가 9월 26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번 오픈캠퍼스에는 도내 9개 고등학교 총 12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1부에서 학생들은 대학홍보 동영상 시청과 입학전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부에서 학생들은 19개 학과, 2개 학부 중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각 학과별 전공탐색을 실시했다. 질의 응답을 통하여 세부 전공분야와 대학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영양학과(학과장 박성수 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하림(제주고 3)군은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서 상투과자(일본 전통과자) 만들기 실습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고윤희(수학교육과 교수)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제주대에 입학해 더 큰 꿈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며 “대학생활이나 전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오픈캠퍼스 통해 많이 얻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5회·6회차 오픈캠퍼스는 10월 24일과 1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해건 기자

## ‘제주 할망’이 들려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 생생한 제주 전통문화 체험

박물관(관장 허남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주최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제주 이야기 in Museum’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제주 어르신들과 만나 소통하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행사에서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제주의 설화, 역사, 생업, 민요, 음식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야기를 진행하는 어르신들은 제주 전통문화에 관련한 구술 작업을 진행해온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또한 제주 잔치 음식 ‘고깃반’ 맛보기 체험과 소리극 ‘우리 할망년 영 살았수다’도 함께 운영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주 음식 이야기 △제주 목축 △제주 마을 설화 △제주 해녀 △제주 민속 △제주 신화 △제주 민요 △제주 소리 이야기 등으로 진행된다.

강은실 학예연구사는 “인문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은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조금만 시간을 내서 제주의 옛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실(☎754-2242) 백승규 기자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생식당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47%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는 학생도 34%로 나타난 만큼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맛이 없다’는 응답이 50.6%를 차지했고 ‘가격이 비싸다’가 31.9%로 뒤를 이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 39.4%와 ‘매우 불만족’이 27.4%를 차지했다. 이어 다른 업체가 들어와 학식이 개선된다면 학생식당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83.8%로 대부분의 학생이 개선된 학식을 고대하고 있다.

고윤희(초등교육학전공 3)씨는 “식당 음식이 맛이 없고 매번 동일한 메뉴가 나오면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도시락을 싸 온다”며 “식사 시간이 부족할 경우만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이용한다고”고 말했다.

학생회에서는 생협의 운영을 위해 현재 학생식당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불만을 종합한 자료를 생협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대학 학생들도 전교생 조합원 가입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고 교수들 29명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월 중순에 열릴 이사회에서 사라캠퍼스 내 생협 유치에 대한 심의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다. 황우화 생협 사무국장은 “이번 심의는 학생들의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생협이 이를 외연화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당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번 심의가 원활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학본부와 교학처, 생협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여러 대안들을 모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찬우 기자



9월 27일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수의과대학 학생회 주최로 ‘2014 반려동물한마당’이 열린 가운데 수의사체험에 참가한 백혜림(남광초 3)양이 자신의 반려견을 진찰하고 있다. 강경태 기자 관련기사 2면

## 김철수 교수 제7대 교수회장 당선

투표서 315표(78.2%) 득표

“섬김과 봉사 정신으로 적극 소통”

제7대 교수회장에 김철수(전산통계학과) 교수가 당선됐다.

9월 30일 치러진 제7대 교수회장 선거에서 김철수 교수는 투표수 409표 중 315표(78.2%)를 획득해, 88표(21.8%)를 획득한 이창준(체육학부) 교수를 227표차로 제치고 제7대 교수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제7대 교수회장 선거는 570명 중 409명이 투표해 71.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 무효표는 총 6표로 집계됐다.

김철수 신임 교수회장은 소견서를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대학생활에서의 고민들을 청취하며 같이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이 대학의 일로 추진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며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사심 없이 일을 해나가 믿을 수 있

는 교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교수는 제주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이학 석사, 이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대 정책연구단장을 역임했다. 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보화아리랑분과위원회와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산정보원장으로 활동했다. 김철수 교수는 지난 1989년 4월 제주대에 부임했다.

김철수 교수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2년이다.

김보라 기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5학년도 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 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원서접수	• 2014. 10. 13.(월) 10:00 ~ 10. 16.(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a href="http://ibsi.jejunu.ac.kr">http://ibsi.jejunu.ac.kr</a>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 <a href="http://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a> )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4. 10. 28.(화) 10:00 ~

특 전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유럽: 알보그대학(덴마크), 멜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 버러대학(영국) / 일본: 아시카가 공대 등)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선급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풍력공학부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선발방법	• 본 과정은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 ( <a href="http://gwe.jejunu.ac.kr">http://gwe.jejunu.ac.kr</a> )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 사설

## 구성원 모두 대학의 사명 다할 때

지난주 아랫별을 뜨겁게 달궜던 아라대동제가 막을 내렸다. 곳은 비날씨 속에서의 첫날 개막식 행사 치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비교적 높았다. 또한 자기개발 강연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 '과 vs 과 : 응고집전', '청춘을 노래하다' 같은 학생참여 프로그램이 많아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행사기간 내내 큰 혼란과 사고가 없었다고 하기에 다행이다. 이번 대동제가 짚은 지성의 창의적 에너지와 열정이 빛어내는 대학문화를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대동제 준비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총학생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는 격려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인지 곧 차분해진 캠퍼스 분위기와 여리 곳에서 감지된다. 졸업을 목전에 둔 4학년 학생들은 잠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에 열심이다. 또 설렘을 안고 첫 대동제를 지켜봤던 신입생들은 아쉬움 속에 다시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왔다.

대학이란 학생들의 활력이 넘치는 움직임에서 그 힘찬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또한 전진 팀구의 자세로 배움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자리가 있는 법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본래 있던 자리가 있다.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교수는 교수의 자리에,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구별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각자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그간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어떠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되돌아 봤으면 한다. 수시로 자가 성찰과 확인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저마다 일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겠으나 일관된 목적은 대학의 본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계율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자아 발견과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성인이다운 사고와 행동으로 사회에서 바라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학생들 또한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미래의 자신을 준비하는 곳이란 점에서 학문 팀구에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필요한 실용적 지식과 응용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대학이 이를 돋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좋은 인격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의 사명이자 역할이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취업에 두기보다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돼야 한다.

지성인이라면 속속적으로 습득하는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다음, 창조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폭넓은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대학의 사명은 좋은 직장에 몇 명을 취업시켰는가 아니라 건강하고 도덕적인 지성인의 양성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학생과 교수가 본분으로 지워진 일, 우선해야 할 일을 학문 팀구에서 되찾을 때 대학의 지향점에 합하여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 수시 원서접수 마감… 772명 모집에 3886명 지원

수의예과 21.8대 1로 최고 경쟁률… 중문·사학도 2배 뛰어

교육대학도 11.4대 1로 경쟁 치열… 해양경찰은 지원 하락

제주대는 9월 17일 '201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772명 모집에 3886명이 지원해 평균 5.03대 1의 경쟁률(지난해 5.43대 1)을 기록했다고 사

학과는 7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해 8.57대 1의 경쟁률(지난해 4.86대 1)을 보였다. 경상대학에서는 경영학과와 관광경영학과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일반전형에서 경영학과가 11명 모집에 88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4.09대 1에서 2배가량 증가한

시모집 경쟁률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중어중문학과의 경우 7명 모집에 7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지난해 5.43대 1)을 기록했다고 사학과는 7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해 8.57대 1의 경쟁률(지난해 4.86대 1)을 보였다. 경상대학에서는 경영학과와 관광경영학과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일반전형에서 경영학과가 11명 모집에 88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4.09대 1에서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관광경영학과의 경쟁률은 6.77대 1(13명 모집, 88명 지원)로 지난해 5.60대 1에서 소폭 상승했다.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해양수산부와 경찰로 이관키로 정부가 기탁을 잡았다. 공학계열은 예년과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다.

보건계열인 간호대학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9.50대 1로 여전히 최상위권 경쟁률을 유지했다. 교육대학 또한 11.35대 1로 지원율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지역인재 육성 특별전형은 6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 7.17대 1의 경쟁률을 보았다.

수시모집 현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민 기자

## 여대생 멘토링 신청 안내

취업전략본부 어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송현선 한중과 교수)는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10월 6일까지 '여대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 신청을 받고 있다.

여대생 멘토링은 도내 직종별 전문가로 활동 중인 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동문 멘토링'과 여교수와 함께하는 '여교수 멘토링'으로 나눠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및 전화로 가능하다.

오리엔테이션은 10월 7일 오후 2시(동문 멘토링)과 오후 4시(여교수 멘토링)에 진행된다. 문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754-4452, 4457) 박소연 기자

##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 새 취업강좌로 청년CEO 육성

청년 CEO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 교육센터(센터장 강철웅)의 창업 강좌가 새롭게 탈바꿈했다.

교양 강좌인 '창업 라인업'을 올해부터 '블루안 컨설팅'과 연계해 진행한다. 기존 전문 CEO 초청 특강에서 벗어나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구상을 세우도록 한다. 또 마지막 수업에서는 사업계획서 발표와 사업 진행시 미비점 등에 토의를 갖는다. 김하윤 기자

## 칼리오페 50주년 기념음악회

고전음악감상 동아리인 칼리오페(동문회장 정은범 제주중앙여중 교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10월 3일 오후 5시 아라뮤즈홀에서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50년의 회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3부로 나눠 합창, 피아노 연주, 협연 등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현 기자

## 2014 반려동물 한마당

수의과대학 학생회(회장 문태성 수의과 2)가 9월 27일 탑동 해변 공연장 일대에서 '2014 반려동물한마당'을 개최했다.

23번째로 개최된 반려동물한마당은 시민들에게 동물과 접촉 기회를 넓히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무료진료 △수의사 체험 △반려동물상식 △애쁜 반려동물 뽁뽁이 △희귀동물체험 △밸바닥 스템프 △간식을 이겨라△야생동물 구조센터 △애견 훈련 상담 센터 등의 부스가 진행됐다. 정현 기자

## 강기준(경제학과) 교수

##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

제주발전연구원 제9대 원장으로 강기준(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제주발전 연구원은 9월 26일 원장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를 열고 6명의 응모자 중 강기준 교수를 이사회(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추천했으며 이사회는 30일 회의를 거쳐 이를 의결했다.

강 교수는 경남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강 교수는 「비관족인인모형을 이용한 종합지표 작성 및 적용」、「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 참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계량 경제학: 이론과 실습」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평냈다. 김하윤 기자

## 제주대 동문 단합과 우정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 “모교와 제주사회에 헌신하자”

## 축구·승부차기·윷놀이 등 진행

'제14회 제주대학교 총동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총동창회(회장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로 9월 28일 대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열렸다.

조정 귀빈과 동문, 가족 등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각 학과 동문회별 축구, 여자 승부차기, 윷놀이, 단체 줄넘기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김태환 총동창회장은 "제주대 동창회는 6만5000여 동문들의 단합과 우정을 위해 매년 동문가족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모든 동문들이 모교와



9월 28일 체육관에서 총동창회 주최로 '제14회 제주대학교 총동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가운데 동문가족들이 윷놀이 경기를 하고 있다.

제주사회 발전에 헌신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 총동창회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강서윤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번호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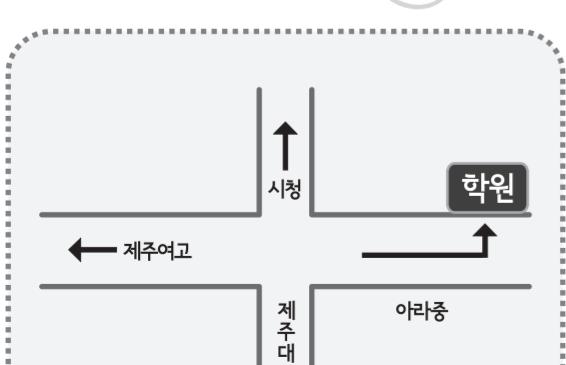
제주시 전지역 서틀 운행 :

제주대↔학원 서틀 운행

## 주말 교육 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서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ac.kr로 제출해야 함.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출판논문 응모 가능  
※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3.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기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4.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6.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 당신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제주대신문은 진실을 담아내고 정론을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예비 언론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깊은과 폐기, 열정을 제주대신문에서 불태우십시오.

##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1. 입사지원서 접수
  - 1) 대상: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 2) 기간: 2014년 10월 1일(수)~10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 3) 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를 제주대신문 편집국으로 방문 제출
2. 전형방법
  - 1) 면접: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 2)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3. 혜택
  - 1)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2) 현직 기자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3) 중앙 언론에서 활용하는 편집시스템 통한 첨단 편집 교육
  - 4)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 5) 취재수당 및 원고료 수시 지급
4. 문의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 건강증진센터 이용 안내

## 1. 의사 진료 및 투약

- 진료 시간 : 아라캠퍼스 - 화, 목(14:00 ~ 17:00)

## 2. 응급 의약품 지급 및 외상 치료

- 학교생활 중에 갑작스런 증상이 발생하거나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적절한 간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정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3. 건강증진실 운영

- 체성분 검사 : 근육량과 체질량 지수 등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분석해 몸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방법인 체성분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 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 4. 구급함(약품) 지원

- 학생 및 교직원들의 공적인 행사(M·T, 농촌봉사활동, 답사,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장기 출장 등)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급함과 남은 약품은 행사가 끝난 뒤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5. 성희롱·성폭력 상담부 운영

-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성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며, 상담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6. 위치 및 문의처

아라캠퍼스 - 본관 대학원동 1층(☎ 754-2059, 2060)  
사라캠퍼스 - 학생회관 1층(☎ 754-4722)

## 교수시론

이동욱  
토목공학과 교수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옳은 답’ 하나가 아닌  
무수한 해답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최선안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

## 정답과 해답, 무엇을 찾을 것인가?

긴 세월은 아니지만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반기업 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특강을 한 바 있다. 대학 강단이든 외부 특강이든 교육자로서 강의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 만, 강의에 임하는 피교육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많이 다름을 느끼곤 한다.

피교육자로서 대학생과 일반인의 교육에 임하는 열정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열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지만, 흥미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루해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열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육 중 질문이나 문제를 던졌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나 반응은 대학생과 일반인이 크게 차이가 난다. 대학생은 ‘정답(正答)’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인은 ‘해답(解答)’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느끼곤 한다.

정답(正答)과 해답(解答).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정답은 말 그대로 ‘옳은 답’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면, 해답은 ‘질문이나 의문의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

나 의문의 풀이과정을 통해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문제 1>  $1 + 1 = ?$

<문제 2> 제주에서 서울을 가는 가장 저렴한 교통 수단은?

<문제 1>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동일하게 ‘2’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문제 2>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일반인의 반응이 매우 차이가 있다. 대학생은 문제가 던져지면 바로 인터넷을 통해 교통 수단별 요금을 검색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문제 2>의 조건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의 의도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학생들이 ‘정답’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해 주면 학생들은 자신의 답이 맞았는지 뒤풀는 경우가 있다. 오로지 정답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는 모습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동안 정답을 찾는 교육만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가 신속하고 명확한 결과를 요구하여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가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무서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기술의 개발과 자기발전만이 생존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기술제일주의’ 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나 ‘흑백논리’의 사고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기술’은 ‘돈(경제성)’ 앞에서는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돈(경제성)’은 결국 ‘인간(이용자)’의 의사결정 속에서 선택되고 운용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초스피드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돈과 다문화관 관점이 상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더불어 숲’을 이루는 지혜가 요구되는 사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해답만이 있을 뿐이며, 그 중에서 최선안을 찾아야 하는 과정만이 존재함을 직시해야 한다. 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선안이 채택되는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답(正答)과 해답(解答). 무엇을 찾을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오로지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다.

## 끊임없이 도전하자

## 동문칼럼

김용우  
어로학과 86학번  
해군 3현대사령부  
김찰실장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이 그 언제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또한 한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다. 지금 제주대 학생들도 큰 결실을 맺기 위해 사회로 나가자 분주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제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도전하자’이다. 너무 상투적인 조언이라 식상하다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작은 열매라도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결실이 없듯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며 머릿속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을 짠다. 그런데 머릿속 상상만으로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도전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결과물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더 큰 결과물로 나를 인도해주는 디딤돌이 돼 줄 것이다.

나 역시 군 생활을 하며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많은 도전을 했다. ‘90년도, 해군소위로 입관해 이듬해 특수부대 해난구조대(SSU)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보고, 이후에는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에 도전해 암흑의 심해에서 잠수함 생활을 해보면서 인내와 성취감을 맛봤다. 이 모든 도전들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됐고, 힘든 병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해야될 수 있게 됐다.

요즘 사회에서 군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이라는 국민이 준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들의 인권보장과 병영부조리가 없는 행복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마도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새내기 대학생들은 뉴스에 접하는 실망스러운 군 소식에 걱정이 앞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강조하고 싶다. 지금 군은 변화하고 있으며 병사와 간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조리 없는 병영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해군을 지원해 드넓은 바다에서 원대한 꿈을 펼쳐보기 바란다. 삶을 살아가면서 군함을 타고 바다를 누비는 것도 색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재학생 3·4학년은 취업준비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을 것이다. 토익준비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당장 책상에서 벗어나 밖으로 돌아다니 보길 바란다. 일찍 일어나 새벽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활기찬 시장 사람들의 하루 시작을 보거나 아무도 없는 가로수 길을 혼자 거닐어 보라. 아니면 숨 막힐 때까지 뛰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각형 공간 안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 설사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절실히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걱정이 사라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무엇이든 도전해야 한다. 훗날 그 도전했던 ‘무엇’이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고 꿈을 가지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청춘과 젊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뒤늦게 알게 되는 선물과 같다. 뒤늦게 선물을 찾아보지만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선물을 찾으려고 도전하라. 각자 다른 선물일 것이다. 얼마나 흥미로운 보물찾기인가. 그리고 찾은 보물을 풀어보길 바란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결실을 맺는 곡식들처럼 좋은 결실을 맺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제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ejenu.ac.kr

## 한국 역사에 자부심 갖는 자세 필요

## 독자기고

좌민정  
간호학과 1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중요시했던 개념이 있다.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다. 비교론적 관점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로 외국과 비교하며 자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방법이다. 이 태도를 중요시 했던 이유는 세계화 가운데 자국 상황을 파악하고 발전하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물론 빠른 산업화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문화산업 등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도 생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미국의 전자기기 회사인 ‘애플’에 대응하는 힘을 갖고 있고, ‘포스코’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강회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많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서로 다투고 교류하면서 뒤섞이게 되어 거의 비슷한 생활양식을 갖게 되었다. 그에 반해 한·중·일은 의식주, 종교, 가치관 등 사소한 것들로 다르다. 예를 들어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은 뒤집김류가 많아서 그 길이가 길고, 우리나라의 밥에 풀기가 있어서 중간 길이이고, 일본은 밥이 뭉쳐지지 않아 젓가락의 길이가 짧다. 그리고 같은 한자 문화권임에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강한 얼이 있다. 과거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던 정신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 또한 아파트와 전통적인 운동 방식을 결합했고, 퓨전 음식, 한복 등을 창조시켜 거꾸로 외국에 전파하고 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미국 속 하나의 주로 작은 나라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역량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가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서양의 문물을 어울리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울해진다. 전기, 전자기기, 원자력 등 거의 모든 일상을 서양 문명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서양의 것은 한국인에게 문명의 이기애에 빠져 들게 해 전통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강한 얼이 있다. 과거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던 정신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의식주로는 제주도내의 다문화 가정은 주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주하면서 생겨난다. 외국인 여성들은 몇 달 내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신 스트레스와 임명 등으로 인해 한국어 습득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늦춰진 한국어 학습은 출산 후 육아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소외현상이다. 그동안 함께 한 가족·친구들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이주 여성들은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앞서 말한 의사소통 문제로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힘들다. 이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어머니가 한국어에

## 다문화가정 어려움 함께 고민해요

## 윤지현

윤지현  
관광경영학과 1

제주대에는 많은 교환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양수업을 통해 알게 된 거마들은 몽골에서 온 학생이다. 거마들은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린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그를 좀 더 이해하고, 그가 한국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다문화가정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도2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센터는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생단체이다. 그곳에서 김정림 사무처장님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들었다. 다문화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사소통이다. 제주도내의 다문화 가정은 주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주하면서 생겨난다. 외국인 여성들은 몇 달 내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신 스트레스와 임명 등으로 인해

한국어 습득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늦춰진 한국어 학습은 출산 후 육아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소외현상이다. 그동안 함께 한 가족·친구들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이주 여성들은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앞서 말한 의사소통 문제로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힘들다. 이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어머니가 한국어에

미숙한 경우 자녀들도 국어에 미숙한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왕따나 소외 현상을 겪고 있으며 무려 80%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잘못된 지원은 다문화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위탁한 단체들은 연간 10~14억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게 도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원금의 80%가 단체 내의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 전기세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20%의 지원금으로 개최되는 행사·교육도 한국인 직원들만 가득 해 소통 등의 문제로 참여가 힘들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참여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의사소통의 문제와, 잘못된 지원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교육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취업문제로 생긴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시 교육 악순환으로 이어져 인재의 낭비와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내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서리도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들이 개설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이뤄지는 지원이 아닌, 다문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이 필요하다. 당시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참여율도 높이고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주대부터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힘써서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돋고, 다양한 인재들의 양성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여학생회 실내 인쇄기·팩스 설치는 학생회관에 위치한 복합기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학교측은 따로 예산을 들어 인쇄기와 팩스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종여학생회 측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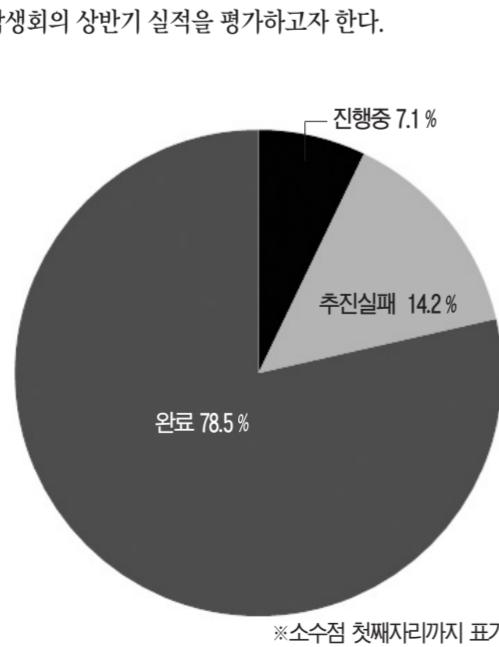
화장실·도서관 통신문 게시 공약은 일부 단과대학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여 학생회는 “게시물 부작 공약은 종여 학생회가 각 단과 대학 여성국장들에게 통신문을 전달하고 있다”며 “몇몇 단과대학에 통신문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종여 학생회의 암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부터 종여 학생회는 선거운동본부 시절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밸로 뛰면서 5천명의 여학우를 대신해서 솔선수범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약속을 지키도록 남은 임기동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종여 학생회의 미이행 공약은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접종 편리화, 종여 학생회 실내 인쇄기·팩스 설치, 화

## &lt;2&gt; ‘여기부터’ 총여학생회 상반기 평가

‘여기부터’ 총여학생회(회장 정승원 환경교육과 4)가 제주대 학생들의 대표를 맡은 지 한 학기가 지났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제주대신문은 종여 학생회의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고자 한다.

## ◇공약 이행률



여기부터 종여 학생회 상반기 공약 이행률

장실통신문 추가 및 도서관 통신문 게시 등 3개의 공약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종여 학생회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편리화는 사실상 현행화처럼 버스를 통해 접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며 “자세히 알아보니 외부에서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세균문제 등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체방안

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 학생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한국병원과 다나카부인과 등 두 곳 뿐이다. 종여 학생회는 예방접종 편리화를 위해 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두 병원에서만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종여 학생회 실내 인쇄기·팩스 설치는 학생회관에 위치한 복합기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학교측은 따로 예산을 들어 인쇄기와 팩스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종여 학생회 측에 전달했다.

화장실·도서관 통신문 게시 공약은 일부 단과대학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여 학생회는 “게시물 부작 공약은 종여 학생회가 각 단과 대학 여성국장들에게 통신문을 전달하고 있다”며 “몇몇 단과대학에 통신문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종여 학생회의

2014 아라대동제 총평

##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학생참여 열기 후끈… 이색행사 눈길

2014 아라대동제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학내 곳곳에서 열렸다. '오춘기 : 괜찮아 청춘이다'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대동제는 각종 강연과 동아리 공연, 위닝 월드컵, 청춘을 노래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다양한 행사로 마련됐다. 대학의 끼이라 불리는 축제인 만큼 즐길거리도 많았지만 고질적인 학생들의 의식개선 등의 과제도 남겼다. 아라대동제를 여리 시선에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lt;편집자 주&gt;

### ◇ 대동제 프로그램 평

첫째 날에 준비된 권보선, 이금재씨의 청춘사용법 강연은 '오춘기 : 괜찮아 청춘이야'라는 아라대동제의 부제에 걸맞은 강연이었다. 자전거 일주로 유명한 권보선씨는 '두바퀴로 그리는 기적' 이런 강연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찰과 존재감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금재씨는 낮에는 청년 사업가, 밤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로 활동하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몇몇 학생들은 강연이 무척 인상 깊었다며 날씨의 영향 때문에 체육관에서 강연이 진행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남겼다.

학생들의 사연을 전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 행사는 독특한 진행방식과 진솔한 사연이 오갔다는 평을 받았다. 자기소개서부터 자신의 창작시를 뽑내는 사연 등 다양한 얘깃거리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학과 간의 게임 대결로 이뤄진 '과 vs 과 : 용고집전' 또한 학생들의 호응이 컸다. 총 10개 학과의 참여로 이뤄진 프로그램은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게임 진행으로 불거리를 제공했다. 김소연(언론홍보학과 1)씨는 "사과 꺾기 대결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한 게임 종목이 있어 흥미로웠다"며 "학과 홍보와 재미를 겸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았으나 배팅 형식의 진행은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이 함께한 행사는 '2014 제대위닝월드컵'은 김형록, 이현호 선수의 해설과 선수팀과의 특별 경기도 준비 많은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게임을 비롯한 사인회와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가져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의 끼를 마음껏 뽑내는 시간인 '청춘을 노래하다'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해 관심을 받았다.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했던 평가단은 학생 100명이 참여하는 청중평가단으로 변경,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 청중 평가단으로 참가한 한 학생은 "예전 경연 프로그램의 경우, 우승자가 학생회

인맥에 좌우된다는 등 심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추첨으로 뽑힌 100명의 청중 평가단 방식은 우승자에 대한 괜한 뿐더러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결과라고 모두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 외 동아리 공연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스웨덴 세탁소, 로맨틱펀치 등의 인디밴드 공연, 팔로알토, 더블 케이 등의 협회 공연 등 준비된 공연들이 뚜렷한 색을 띠고 있어 즐기기에 무난했다는 반응이 오갔다.

'진짜'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를 '수천만 원짜리 걸 그룹의 공연이나 폭죽놀이가 주가 되는 기존의 축제와는 다른, 학생다운 축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쉼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축제 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성운(행정학과 2)씨는 "이번에 마련된 과 vs 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프로그램 등은 연예인들의 공연에만 관심 있던 학생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줬다"며 "학생이 주가 된다는 축제의 컨셉이 더 반영됐으면 더욱 훌륭한 축제가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괜찮아 청춘이야'라는 부제와 테마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첫 날 준비된 강연에만 한정된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 ◇ 주점·장터 등 부대 행사

학생회, 특정 단체 모임 등이 준비한 주점과 장터는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학생들이 체험 할 수 있는 부스 보다는 주로 판매 목적의 부스가 많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장터에서는 전기 공급과 가스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본관 앞 도로에 위치한 소원나무는 상상 유니브 제주와 함께한 행사로 현혈봉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학내미화원은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면 끝도 중요한 법인데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매년 축제마다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성숙한 의식제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권리오름에서의 '공포체험- 여태껏 보지 못했던 공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호평이 오간 행사였다. 비 온 뒤의 을씨년스러운 날씨가 무시무시한 분위기 조성에 한 몇하고 스태프들의 분장이 정말 리얼했다고 참여 학생들은 전했다.

### ◇ 일부 학생들의 의식개선 필요

대동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잔디밭 진흙 문제는 이번 축제에서도 이어졌다. 총학생회측은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에게 임시방편으로 비닐봉지를 지급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귀가하는 길에 비닐봉지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거거나, 진흙을 화장실에서 씻어 흙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뒷정리를 안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또한 주점을 운영한 학생들과 장터 운영 업자들을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아라대동제에서 초대가수 노을이 공연을 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 아라대동제는 청춘을 노래하다' 등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으나(사진 왼쪽), 신발에 진흙이 묻은 채 건물 내를 돌아다녀(사진 오른쪽)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식자재와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간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학내미화원들은 축제 다음날이 됐을 힘들었다고 한다.

한 학내미화원은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면 끝도 중요한 법인데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매년 축제마다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성숙한 의식제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총학생회의 자체 평가

아라대동제를 주관한 '진짜'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를 마치고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다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값비싼 연예인들이 주가 되는 축제가 아닌, 많은 학생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동아리를 이 학생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다양하게 선보였던 것,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초청 가수 물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특색 있고 실력 있는 가수들의 공연을 진행한 것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노점상의 출입을 막고, 협상을 통해 질서있는 통제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덧붙였다.

불였다.

반면 대동제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부분은 날씨부분을 꼽았다. 총학생회는 태풍 예보를 듣고 축제를 연기하려고 했으나 모든 학사일정과 축제 준비를 재조정하는데 드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 대동제 강행을 결정했다. 축제의 메인 무대였던 잔디밭이 질퍽거리는 등 문제가 생긴 것이 무척 아쉽고, 그럼에도 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긴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축제를 대운동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이 제대마을의 민원을 염려해 잔디밭을 이용케 한 점도 미련이 남는 부분이라 말했다.

고광표(경영학과 4) 총학생회장은 "이번 아라 대동제를 통해 축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부르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구성들이 축제의 성공 실패 여부를 짐작하는 척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즐거운 축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고생한 총학생회의 존재를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그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아라대동제를 찾아주신 학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수빈 기자

이어 대동제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부분은 날씨부분을 꼽았다. 총학생회는 태풍 예보를 듣고 축제를 연기하려고 했으나 모든 학사일정과 축제 준비를 재조정하는데 드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 대동제 강행을 결정했다. 축제의 메인 무대였던 잔디밭이 질퍽거리는 등 문제가 생긴 것이 무척 아쉽고, 그럼에도 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긴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축제를 대운동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이 제대마을의 민원을 염려해 잔디밭을 이용케 한 점도 미련이 남는 부분이라 말했다.

### 제주 향토 식도락 여행

## 제주 음식은 낯선 사람도 반한다

여행에서 맛보는 즐거움은 또 하나의 행복이다. 그걸 증명하듯 최근 식도락 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식도락이란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일'의 뜻이다. 식도락 중심에는 지역의 향토음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특이한 음식문화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향토음식 소개에 앞서 낯선 제주의 음식을 접하려는 두 사람과 동행했다.

먼저 만난 증홍(관광개발학과 3)씨는 제주도에 온지 3년이 된 중국인 유학생이다. 제주도 향토음식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흑돼지'라고 답했다. 잡내가 달한 제주의 돼지는 유명한 식재료이다. 이번에 그녀가 접할 음식은 제주의 돼지와 모자반으로 만드는 몸국이다.

모자반을 제주에서는 몸이라 불렀다.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고 끓인 국이 바로 몸국이다. 돼지고기와 내장, 순대까지 삶아 낸 국물에 모자반을 넣고 끓이면 느끼함이 줄어들고 독특한 맛이 우러난다. 몸국은 많은 순남을 치르는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특별히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었다. 이 국은 귀하고 귀한 돼지고기를 날김없이 이용하는 알을 조리의 본보기이다. 반면 한반도 내륙의 도시에는 고추장을 활용한 몸국화가 많다. 처음 제주 몸국을 맛본 그는 "물고기를 신선하게 먹으면서 식사와 안주가 하나될 수 있는 음식"이라며 "그 속에 있는 회의 맛, 채소의 맛이 하나하나 느껴졌다. 그 속에 같이 조화되는 식초의 맛, 된장의 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7대 대표 향토음식의 브랜드화를 비롯 향토음식의 경쟁력 기반 구축, 관광 상품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년도 향토음식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제주도 향토음식에는 제주의 문화가 담겨 있다. 앞으로 제주도 향토음식이 더욱 대중화 돼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가깝게 느낄 수 있길 바란다.

두번째로 함께 향토음식을 체험한 사람은 허빈(지구해양과학과 2)씨다. 그는 대학생 활동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온 학생이다.

제주도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음식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바다음식과 내륙음식 모두 공존한다는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소개한 음식은 제주도 향토음식인 몸국이다. 제주의 몸국은 대표적으로 자리돔몰회와 한치몰회가 있다. 자리돔몰회와 한치몰회는 2013년 12월 26일, 도청에서 발표한 제주 7대 향토음식에 선정됐다. 자리돔몰회 한치몰회를 포함해 갈치국, 성게국, 옥돔국이, 빙떡, 고기국수도 제주 7대 향토음식으로 뽑혔다.

특히 자리돔몰회는 제주 7대 향토음식 중 1위를 차지했다. 1위로 뽑힌 자리돔몰회는 얇게 썬 자리돔에 오이, 양파, 부추, 깻잎 등을 넣고 끓고 된장과 고추장으로 간을 해 만든 생선 몸국회로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한치몰회는 채로 썬 싱싱한 한치에 오이, 양파, 부추, 깻잎, 끓고 된장을 넣고 된장 간을 해 만든 몸국회다. 쫀득쫀득하면서 고소하다.

몰회는 제주만의 고유한 음식은 아니지만 제주만의 조리법이 있다. 제주도 몸국의 기본 양념은 된장이다. 반면 한반도 내륙의 도시에는 고추장을 활용한 몸국화가 많다. 처음 제주 몸국을 맛본 그는 "물고기를 신선하게 먹으면서 식사와 안주가 하나될 수 있는 음식"이라며 "그 속에 있는 회의 맛, 채소의 맛이 하나하나 느껴졌다. 그 속에 같이 조화되는 식초의 맛, 된장의 맛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7대 대표 향토음식의 브랜드화를 비롯 향토음식의 경쟁력 기반 구축, 관광 상품화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년도 향토음식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제주도 향토음식에는 제주의 문화가 담겨 있다. 앞으로 제주도 향토음식이 더욱 대중화 돼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가깝게 느낄 수 있길 바란다.



제주음식인 몸국(왼쪽)과 몸회를 시식하는 허빈(지구해양과학과 2)씨(오른쪽).

### 대학가 소식

## 釜大新聞

부산대 학과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 반발 이어져

고

## 高大新聞

갑작스레 폐강된 외국어 교양강의

## 연세춘추

중도 소재불명자료 논란

## 大學新聞

2015학년도부터 재수강시 A+ 못받아

## 서울시립대신문

국가근로장학 부당수급자 적발

## 이대학보

공휴일 휴강 강의 지정된 기간에 보강

고려대는 2학기부터 외국어로 진행되는 교양수업과 공통교양의 폐강 기준을 수강 인원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 과정에서 공지가 늦어 많은 구성원이 혼란을 빚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폐강 기준 변경이 새롭게 적용되는 강의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와 공통교양 등이다.

9월 11일, 문과대 국제어문학부 학과장들은 교수처에 외국어 강의 폐강 기준 변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공문에는 외국어 강의 폐강 기준 강화로 인해 수업환경이 악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교무처는 16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학기에 대해 폐강 인원을 15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철 독어독문학과장은 "현대 외국어 강의는 한 교수 당 소수의 학생을 배정해 서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며 "폐강 기준 변경은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삼는 본교의 이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술정보원 문현정보팀 김원만 직원은 "소재불명자료가 나타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책을 보고 제자리에 되돌려 놓지 않는 경우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서관 층은 소재불명자료 발생 시 '소재불명자료 신고게시판'을 통해 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김씨는 "소재불명자료가 접수되면 먼저 해당 도서의 위치와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는 해당 도서의 주변 일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신고게시판에 신고를 하는 경우 소재불명자료의 소재를 파악해 평균 3~4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고 있다.

현재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온 2009년 9월부터 접수된 도서 모두 소재를 확인해 학생들에게 답변을 완료한 상태이다.

12명 학생이 수강신청해 폐강된 강의를 신청했던 사범대의 한 학생은 "수업 진행을 지난주까지 했다"며 "갑자기 수강인원이 15명에 미치지 못해 폐강됐다는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접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사전 공지가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

12명 학생이 수강신청해 폐강된 강의를 신청했던 사범대의 한 학생은 "수업 진행을 지난주까지 했다"며 "갑자기 수강인원이 15명에 미치지 못해 폐강됐다는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접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사전 공지가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

학술정보원 문현정보팀 김도현(물리전 문학부 11)씨는 "재수강 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상한선을 A로 제한하는 것 만으로 재수강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장을 보였다.